

고려가요 <動動>의 美的 짜임과 性格

양희찬**

- <차례> —
1. 머리말
 2. 작품 단락 표시
 3. 같은 뜻 같은 꼴의 표현
 4. 단락의 짜임새
 5. <動動>의 성격
 6. 마무리

1. 머리말

이 고찰은 <樂學軌範>에 수록된 작품 자료 <動動>¹⁾을 대상으로 그 짜임을 분석하고, 이 분석 결과로 작품의 성격을 언급하는 것을 그 범위로 한다.

* 이 논문은 한국고시기문학회와 (사)온지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전국학술대회(2008. 6.25)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이중 게재 논문이 아님.

** 전북대학교

1) 작품명은 이 뒤로 ‘< >’를 쓰지 않고 ‘動動’으로 쓴다. 문헌명이나 다른 작품명 또한 똑같이 漢字로만 표기한다.

글을 쓰는 이는 자신이 다루는 내용이 알맞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얹어 찐다. 모든 글에는 그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어 놓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는 사물을 굴절시키고 변형시켜 보이듯이 은근히 수사한 것도 있다. 動動을 지은 이가 누구인지 개인인지 집단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²⁾, 한 편의 작품이라면 일정한 유기적 짜임새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그 얹어 찐 솜씨를 여러 視角으로 살펴본다.

動動은 그 틀이 月令歌體인 대로 1년 12달의 순서로 짜여 있다. 이 짜임은 각 달의 자연현상 및 절기 풍속을 글감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의 흐름이 시간의 흐름처럼 앞을 물어 따르고 뒤를 이어 끄는 모양새가 아니다. 그렇다고 그 흐름이 끊어져 도막 나 있는 상태는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내용의 짜임에 대한 파악은 앞뒤 달들의 노랫말 내용에서 서로 밀접한 상응 관계를 따져 그 엮어 찐 實相을 살필 것이다. 글을 만드는 이나 이들이 글 내용을 순조롭게 엮겠지만, 자기의 의도에 따라 알맞게 그 흐름을 뒤엎어 엮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달마다에 다루는 글감의 성격 때문에, 작품 내용의 흐름 그 바탕 뼈대가 되는 作意를 달의 순서에 맞추어 형상화해내기 곤란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動動의 얹어 찐 엮은 모습을 파악하려는 것이 이 고찰의 알맹이이다.

이 고찰의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中宗實錄의 중종 13년(1518년) 4월 1일 기사를 짚막하게 살핀다.

大提學南袞啓曰 前者命臣 改製樂章中語涉淫詞釋教者 臣與掌樂院提調及解音律樂師 反覆商確 如牙拍呈才動動詞 語涉男女間淫詞 代以新都歌 盖以音節同也

2) 動動의 出典인 樂學軌範에도 그런 언급이 없고, 柳濯과 관련된 고문헌과 논의들(김준옥, 『한국언어문학』 제35집 참조)에서도 어수선하다.

이는 중종 12년 12월 23일 홍문관 직제학 조광조 등이 그 당시 사용하던 樂章들 중에서 “歌詞가 淫亂하거나 佛敎에 관련된 樂章을 고치게 해 달라”고 중종에게 奏請³⁾하여 수행된 일의 결과보고의 한 부분이다. 이 말에서 그들은 動動의 내용을 ‘男女間淫詞’라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이 ‘淫詞’라는 인식과 動動의 作意 본래의 사이에 어긋남이 없을지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動動의 내용을 雙花店의 내용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이 ‘淫詞’인식에 動動의 序詞를 맞추어보면, 흔히 보듯 특정한 대상을 향한 戀情 및 과감하게 노출시킨 愛情을 읊은 작품들과 動動을 같은 성격 및 유형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動動은 서사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달의 노랫말 내용이 조화를 이룰 때에야 한 편의 온전한 작품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이 의문들이 이 고찰의 방향과 초점을 결정하는 계기가 된다.

2. 작품 단락 표시

여기에는 原典에서 작품만 들어내어, 다루기 편하도록 미리 단락을 나누어 보인다.

㉠

德으란 곰비에 받좁고 福으란 림비에 받좁고 德이여 福이라 호놀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動動다리

㉡

正月스 나릿브른 아으 어저 녹저 흥논디 누릿 가온디 나곤 몸하 흥올로 녀셔 아으 動動다리

㉢

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스불 다호라 萬人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動動다리

三月 나며 開흥 아으 滿春 달윗고지여 느미 브롤 즈슬 디너 나샷다 아으 動動다리

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곳고리새여 므슴다 錄事니몬 넷나를 넛고신 더 아으 動動다리

㉣

五月 五일에 아으 수릿날 아춤 藥은 즈른 힐 長存호살 藥이라 받좁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六月스 보로매 아으 별해 ㅂ론 ㅂ다호라 도라보실 니를 ㅂ곰 ㅂ죈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七月스 보로매 아으 百種 ㅂ하야 두고 니를 ㅎ디 녀가져 願을 비습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八月스 보로몬 아으 嘉俳나라마룬 니를 ㅂ셔 너곤 오늘났 嘉俳샷다 아으 動動다리

㉤

九月 九일에 아으 藥이라 먹논 黃花 고지 안해 드니 새셔 가만호애라 아으 動動다리

㉥

十月애 아으 저미연 ㅂ룻다호라 ㅂ거 ㅂ리신 後에 디니실 흥 부니 업스 샷다 아으 動動다리

十一月스 봉당자리에 아으 汗衫 두퍼 누워 슬홀 스라운더 고우 닐 스식 움 닐셔 아으 動動다리

十二月스 분디남꺾로 ㅂ곤 아으 나슬 盤잇 저다호라 니피 알피 드러 열 이노니 소니 가재다 ㅂ르습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 등이 단락 표시이고, 이 고찰에서 다루지 않는 여음구는 작은 글자로 표기하고, 여섯 단락으로 나뉘었다. ㉢와 ㉥은 내용의 성향으로는 한 단락으로 묶이기도 한다.

3) 弘文館直提學趙光祖 典翰孔瑞麟 應敎閔壽千等 啓曰 語涉淫詞釋敎樂章 令臣等改製 夫樂章協音律傳後世 至爲重大故 成宗朝 使大提學與掌樂院提調同議參考音律 商確審定

3. 같은 뜻 같은 꼴의 표현

3.1 같은 뜻의 표현

1月詞의 “(몸하) 홀로로 녀셔”와 11月詞의 “(고운 닐) 스스옴 녀셔”는 ‘홀로로’의 (고운 이의 제시가 아직 없어) 모호하고 ‘스스옴’의 (고운 이의 제시가 있어) 구체적인 차이는 문맥에서의 차이이다. 1월사의 ‘혼자’라는 화자의 상태는 11월사에서의 ‘스스옴’으로 대상(고운 이)과의 관계를 담고 있음이 드러난다. 1월사의 ‘넷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상태’와 11월사의 ‘봉당자리에 汗衫을 덮고 지내야 하는 상태’는 그 ‘혼자인 상태’를 수식하는 구실을 하는데, 의미로서만 이 둘은 서로 바꾸어도 어색하지 않다. “봉당자리에… 스라운더”는 견디기 어려운 상태를 뜻하는 구실 말고 다른 특별한 의도로 사용된 것이라고 풀이할 필요는 없다.⁴⁾ “어저 녹져”는 누리 가운데 조화로운 자연현상을 뜻해, “홀로로 녀셔”와 대비되는 효과를 낸다. 둘 다 ‘고운 이와 함께 있지 못하는 상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단순한 표현이다. 1월사의 ‘홀로로’는 11월사의 ‘스스옴’과의 문맥관계에서 뒤이어질 내용을 암시하는 구실로서의 표현 효과, 11월사의 ‘스스옴’은 사실을 밝혀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효과가 있다.

3.2 같은 꼴의 표현

2·6·10·12月詞에 “다호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2월사에서는 그 대상

을 드러내놓지 않은 채 사용되고, 다른 세 달에서는 화자 자신을 견주어 사용한 비유이다. 앞엿것은 (萬人을 비출) 상태의 조건을, 뒤엿것은 (화자가 겪고 있는) 상태의 실상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2월사의 ‘등불’은, 松江 鄭澈의 思美人曲에 “동산의 둘이 나고 북극의 별이 뵈니 … 누 우헝 거러 두고 팔황의 다 비취여 심산궁곡을 낮궤티 밍그쇼셔”⁵⁾라 하여 임금의 德化를 형상화하였듯이, ‘萬人을 비출 모습’을 통해 德化할 수 있는 氣品을 갖춘 인물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 德化는 임금의 恩德에 의한 教化力과 같이 그 대상의 기품이 사람들에게 미칠 강한 影響力을 암시한다. 이 대상은, 動動에서 4월사에 관직으로 제시되어 구체적이고 유일한 인물인 ‘錄事’로 지목된다.

6월사의 “버룬 빗”은 버려진 상태만을 말할 뿐 그 동기 및 원인이 드러나 있지 않다. 가령, 流頭節에 나쁜 때를 씻어내듯 그 용도로 쓰인 빗도 일을 마치고 버린 것이라면, 이 ‘버룬’은 의도적인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그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경우라면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빗 자체는 머리를 단정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 쓰이는 물건이므로, 하찮게 여길 물건이 아니다. 달래꽃 같은 모습으로 단장하는 데 머리를 곱게 빗을 빗은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다. “도라보실 니물 적곰 좃니노이다”의 ‘조곰’은 임이 화자 자신을 돌아보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속마음을 담은 것이다. 이 내용에서 ‘떠나감’을 뽑아내어 화자가 ‘버려진 상태’라고 풀이하는 것은 단순한 辭典的 意味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표현의 내용으로도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가릴 수 없다.

10월사의 “저미연”은 어떤 목적으로 가늘고 얇게 썰거나 깎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저미연 빗’을 그 뒤의 “것거 브리신”과 연결하면 나뭇가지나

4) 高麗圖經에 汗衫이 婢妾의 의복으로 설명되어 있다(이명휘, 『강릉민속학』 제20집, 570쪽 참조) 하더라도, 한삼이 겨울과 관련하여 봉당이 방에 상대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수사적 의미 구실을 한다는 풀이에 그치는 것이 건강부회를 끌어들이지 않을 것이다.

5) 松江歌辭 關西本(김기중, 가사문학전집 제2권, 아세아문화사, 1999.).

어떤 물건을 만들 재료로 물건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 ‘무엇’이라는 뜻이 담긴 말일 것 같다. 즉, ‘벼룻’은 염주로 만드는 보리수⁶⁾ 열매거나 여느 나무나 어떤 재료로 만든 물건이 아니다.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버려진’ 벼룻은 쓸모없는 용도의 성격으로 풀이되기보다, 물건을 만들 재료의 일부분이라는 속성에서 주변적인 성격으로 풀이되어야 앞의 ‘빋’이나 뒤의 ‘저’와도 ‘버려진 것’이라는 일정한 성격을 가진 글감이 된다.

12월사의 “나술 盤잇 저”에서 ‘盤’이 제사 및 연회 등을 위한 것인지 그 용도를 알 수 없다. 다만, 분지나무는 그 열매가 약용으로 쓰이고 가지에 잎이 많으며 가시가 있는 점에서 그 “저”는 제격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흔한 나뭇가지로 만든 임시방편의 대용품이라고 풀이된다. 이 풀이로 그 행사는 제사가 아니라 연회가 알맞다. 이 연회가 격식을 갖추어 베풀어진 정식 연회라도 ‘분지나무로 만든 저’는 격이 낮은 행사임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 “저”가 “소니 가재다 무릅습”은 것은 그 임자의 것으로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주변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풀이된다.

끝으로, 이 “-다호라” 네 글감이 든 구절과, 각각 이어진 그 다음 구절의 관계를 보면, 2월사에는 긍정-긍정, 6월사에는 부정-긍정, 10·12월사에는 부정-부정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다호라” 표현들이 세 성향으로 나뉘어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어가는 것은 문맥의 흐름과 관련 있어 보인다.

3.3 시간과 행위

動動 12달의 내용은 모두 현재의 시간에서 이루어진다. 이 현재의 시간은 12달의 모든 행위들에서 생생한 실감을 솟구어내는 효과가 있다. 이런

현재의 시간 배경 가운데에서 4월사의 ‘옛날’과 8월사의 ‘임과 같이 지내곤 했던 지난해들의 嘉俳날’ 이 두 내용만 과거의 일을 다루고 있어 두드러져 보인다. 다만, 그 ‘옛날’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홍올로’ ‘스식옴’ ‘빋·벼룻·저다호라’의 속사정은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 게다가 2월사와 3월사의 頌讚 내용은 그 옛날과 지금에 모두 같은 조건일 뿐, 옛날의 사정을 알려주는 근거가 못 된다.

3.4 풍속 글감

動動 12달의 노래말에는 그 달의 절기 풍속을 글감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2월 燃燈, 5월 수리, 6월 流頭, 7월 百種, 8월 嘉俳, 9월 重陽의 풍속이 글감으로 다루어졌고, 나머지 달은 풍속을 다루지 않고 자연현상(1·3·4월) 및 임의의 글감(10·11·12월)을 다루었다. 1·11·12월에 절기 풍속 및 자연현상을 글감으로 다룰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예컨대, 1월사에 설과 관련된 행사 및 행위를 다루거나, 11월사에서 “봉당자리에 汗衫 두피 누워 슬흘 스라운더” 대신에 ‘동짓달 지나긴 밤’과 같이 절기와 자연현상을 담은 흔한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고, 12월에는 除夕 등의 글감 거리들이 있다. 물론 12월사의 내용으로 미루어 제석 등의 연회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막연하여 단정하지 못할 따름이다. 이처럼 풍속을 글감으로 다루지 않은 것은 作意의 형상화에 필요한 글감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였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⁷⁾ 물론 動動이 월령가이기 때문에 12달 모두 풍속을 글감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글감

6) 박병채(『高麗歌謠의 語釋研究』, 이우출판사, 1980), 115~116쪽 및 엄경흠(『農謠 謠詞와의 비교를 통한 「動動」의 解釋』, 『동남어문논집』 제21집, 2006), 166~172쪽 참조.

7) 10월사의 “벼룻”, 12월사의 “연회”를 각각 節氣儀式과 관련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벼룻”은 의식용 물건을 만들고 난 찌꺼기로서의 ‘무엇’으로, ‘연회’를 除夕 등의 행사로 풀이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선택은 이 작품이 걸모양은 월령체가의 틀을 빌었으며, 내용은 월령체가류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4. 단락의 짜임새

〈動動〉의 내용을 序詞에 이어 12달 순서대로 노랫말을 읽어 나가면 그 흐름을 제대로 잡아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12달의 노랫말을 네 계절(春1·2·3/夏4·5·6/秋7·8·9/冬10·11·12 : 음력)도 감안하면서 문맥에서의 관계를 파악하여, [2. 작품 단락 표시] 항에서 보인 단락들로 나누었다. 이 단락 나누기에는 결국 계절보다 內容과 脈絡의 密接性이 가능자가 되었다. 이 단락들 중에 ㉓와 ㉔은 내용 성향으로는 한 단락으로 묶이되, 단락 ㉓인 1월사가 12달 노랫말의 첫 부분으로서 나머지 노랫말의 내용을 열면서 포괄하는 구실을 하는 특성, 단락 ㉔은 작품의 마무리 부분이라는 점에서 다시 서로 나뉘게 된다.

㉓은 〈動動〉의 성격을 밝히는 관건이 되므로, 다른 단락의 풀이를 마친 다음에 이 풀이들을 모아 [5. 〈動動〉의 성격]에서 살피기로 한다.

㉓에서 2월사의 “(등불이) 萬人 비취실 중”은 이 작품에서 화자와 더불어 4월사에 유일하게 구체적인 인물로 등장하여 화자의 ‘고운 입’으로 지목되는 ‘錄事’의 품위를 은유한 것이다. 이 작중 두 인물 화자와 녹사 중에서 萬人과의 사회적 관계를 가지며 그 기품이 거론될 인물로는 화자보다, 하위 적이라도 벼슬을 하는 녹사라고 판단하는 것이 알맞다. 제삼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 작품은 온전한 작품이 될 수 없다. 그리고 2월사의 “노피현 燈入불 다호라”에 대하여 3월사의 “滿春 달왔고지어⁸⁾”는 달래꽃을 직접

호칭하여 “늑미 브롤 즈슬 디너 나샷다”고 칭송하는, 감탄의 표현이다. 2월사의 내용은 氣品을 말한 것이고, 이 3월사의 내용은 外貌를 말한 것이다. 그런데 ‘-다호라’와 ‘-여’로 표현방법이 다른 것이나, 성격이 다른 ‘등불’과 ‘꽃’으로 같은 대상을 형용하는 것은 안 어울린다는 점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화사한 달래꽃의 모습은 (달래꽃으로 장식한 모습처럼) 화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은유한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알맞다. 녹사와 화자의 이 같은 대비가 작품의 짜임을 훨씬 조화롭고 유기적이지 않게 때문이다. 그리고 이 대비로 ‘錄事와 화자의 옛날’이 한층 두드러지게 된다. 다만, 두 사람이 각각 떨어져(스식음) 지내게 된 원인을 담은 듯이 말한 “무슴다”가 풀이되어야 한다. 이것을 ‘(아무 까닭도 없이) 무엇 때문에’라고 풀이하면서 단순하게 녹사를 탓하는 원망을 담은 표현이라고 하고 만다면, 녹사의 성격이 풍류랑, 화자의 성격이 노류장화나 버림 받은 여인으로 단순하게 판단될 여지가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뒤에서 다른 풀이와 합하여 다시 다룰 것이다.

이 ㉓단락은 화자와 녹사의 관계를 다른 내용으로 다른 단락들과 내용이 분별된다.

㉔은 ㉓에 깔려 있고 4월사의 “錄事니뎌 넷니를 닛고신더”에서 뻗어나온, 화자의 심적 갈등이 다루어져 있다. 녹사를 향한 화자의 마음은 6월사의 “도라보실 니를 적곰 좇노이디다”에 그대로 담겨 있다. ‘돌아보실 것으로 기대하는 입’인 녹사가 화자를 ‘벼랑에 버려진 빛’처럼 상대해주지 않는 상태에서의 갈등을 ‘적곰’에 숨겨 담은 독백이다. 이 ‘조곰’(적곰)은, 아주 조심스러운 행위를 묘사하여 화자가 녹사를 향한 간절한 심리를 아주 뚜렷이 돋보이게 한다. 이 독백의 속마음은, 8월사의 ‘입과 함께 지냈던 지난해들의 가배절에 대한 회상’이 4월사의 ‘옛날’과 어울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長存할 藥을 바치려는 마음, ‘한곳에 함께 갈 수 있기를 비는 축원’은 녹사가 돌아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의 한결같은 표현이다. 끝의 8월사 내용은 과거에 입을 모시고 지내곤 하던 가배절을 오늘도 입을 모시고 지내게 될

8) 이 작품에서 ‘사잇소리(ㄱ)’의 사용 용례, 특히 8월사의 “오늘날”로 미루어, ‘滿春달’이 되려면 ‘-달(윗곳)’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正月ㄱ 나리” 등으로 미루어 생각하면, ‘滿春ㄱ달’이 되어야 할 텐데, 생략되었거나 부사격으로 처리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것이라는 ‘만남의 기쁨’에 대한 기대를 안에 담은 표현이다. 이 풀이는 現在라는 時間性과, 9월사 내용과 순조롭게 이어지는 맥락에서 알맞은 풀이이다. 8월사의 이 풀이는, 뒤 [5. 動動의 성격]에서 序詞의 성격을 밝히는 데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다.

이 ㉔단락의 짜임을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다. 6월사의 志向에서 5월사와 7월사의 祝願으로 흩어져 뒤섞이고, 이 지향을 발전시키고 4월사의 ‘무슴다’ 심리를 이어받아 8월사에서 ‘만남의 기쁨’에 대한 기대가 자리한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의 맥락이 달의 순서와 달리 엮이게 된 원인은 절기의 풍속을 글감으로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한계 때문이다. 이 단락의 내용을 이렇게 엮어서 풀지 않으면 산만한 짜임이라고 판단하게 될 수 있다. 조금 보태면, 이 단락 각 달의 표현은 모두 한 결의 속마음을 표현한 것인데, 이 속마음을 여러 문장들로 屈折시켜 달리 표현한 것을 變形生成過程을 감안하여 읽은 것이다.

㉕는 ㉔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다루기로 하고, ㉔를 먼저 다룬다. 고운이와 떨어져 각각 ‘혼자’ 지내는 實狀의 정서를 공동 밀바탕으로 한 이 네 달 노랫말의 짜임새는 ㉔단락과 같다. 그런데 ㉔가 마음속의 심리를 다룬 것이라면, ㉔는 현실 실제 상태를 다룬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현실 실상을 다룬 만큼 그 내용은 二重으로 읽힐 부분이 있다. 이 중에 10월사의 “디니실 혼 부니 업스샷다”와 12월사의 “니미 알피 드러 얼이노니 소니 가재 다 므르습노이다” 이 두 표현이다.

먼저, ‘한 분’을 ‘특정한 한 사람’으로 풀이해야 하는가,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 분이라도’로 풀이할 수 있는가이다. 곧, ‘錄事님’은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인가, 불특정의 여러 사람들을 지칭한 것인가이다. 제대로 흐르는 문맥으로서는 ‘오직 그 한 분’으로 풀이되어야 알맞다. 여러 사람으로 풀이하게 되면, 화자는 노류장화의 성격이 되거나, 감정의 지나친 노출로 作意와 文脈의 흐름을 해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5. 動動의

성격]에서 序詞의 성격을 풀이하면서 다시 구체적으로 다룬다.

12월사에서 ‘젓가락을 임의 앞에 놓으니 그 젓가락을 다른 사람이 집어 음식을 먹는’ 묘사에는 주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 배경으로 다루어져 있다. 이런 자리에서 어떤 젓가락을 특정한 사람의 것으로 지정하려면, 젓가락을 놓는 사람이 그 의도를 밝히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젓가락의 임자는 지정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12월사의 내용은 화자가 걸으로는 드러내지 못한 속마음을 굴절시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녹사님’은 화자의 의도를 모른 척 한 것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벼랑에 버린 빗’ ‘꺾어 버린 나뭇가지’의 표현과 젓가락의 표현이 형상화하고 있는 것은 같은 심리 상태이며, 화자가 ‘버림 받은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임이 화자의 그 마음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다는 풀이가 알맞다. 그렇다면 화자에게 관심이 없을 것은 당연하고, 화자 ‘혼자만’ 마음 쓰는 짝사랑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 까닭은 12달의 노랫말에는 화자가 녹사와 함께 있는 현장에서 녹사가 화자에게 보였을 어떤 반응에 대한 내용, 예컨대 鄭澈의 續美人曲에서처럼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너기실 시”⁹⁾와 같이 녹사가 화자에게 엿보여 화자가 느꼈을 어떤 交感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4월사의 ‘옛날’과 8월사의 ‘임을 모시곤 했던 일’의 실제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어떤 근거가 이 작품에 없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 12월사의 연회 상황과, 지난해들의 가배절에 함께 지내곤 했다는 화자의 진술을 묶어보면, 어떤 다른 현장들에 서라도 모두 이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맞추어보아 알 수 있다.

이 ㉔단락의 ‘스스름 홀로 널서’의 밀바탕은 10·12월사에서 구체적으로 표출되고, 이 정서가 1월사로 이어져 노래가 되풀이되는 흐름이 순조롭고 자연스럽다. 1월사의 ‘(임의 제시가 없어) 모호함’이 10·11·12월사에

9) 앞과 같은 책.

서 화자의 현실 처지가 구체화되고, 12월사를 마치고 다시 이어 1월사를 노래할 때는 임의 존재와 화자의 ‘스식움’ 상태를 아우른 ‘흐올로’ 서정의 울림이 뚜렷해지면서 作意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흐름의 짜임에서 1월사가 이미 겨냥된 전주곡의 구실을 맡게 짜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순환될 수 있는 짜임새¹⁰⁾는 이 노래가 한 자리에서 거듭 이어서 노래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리고 10·11·12월사는 11월사의 “스식움 녀셔”가 그 중심이 되어 10월사의 “디니실 흐 부니 업스샷다”, 이 내용의 실증 사례가 되는 12월사의 “니피 알퓌 드러 얼이노니 소니 가재다 므릅노이다”로 짜이고, 이 전부를 받아 다시 노래를 새롭게 잇게 하면서 이 세 노래말의 정서를 이끌어내는 구실을 하도록 12달의 처음인 1월사에 모호하여 蓋然性이 심한 ‘흐올로’ 서정을 풀어놓은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단락 ㉔과 1월사인 단락 ㉓는 맡은 구실의 효과가 서로 다름에서 다시 각각의 단락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다.

㉔ “藥이라 먹논 黃花 고지 안해 드니 새셔 가만¹¹⁾ 흐애라”는 작품 전체에 깔려 있는 ‘흐올로’의 갈등 심리와는 안 어울린다. 임의 장수를 기원하는 5월사의 수릿날 아침 약과는 상대적으로 이 9월사의 약 黃花(黃菊花)는 화자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힌다. ‘집안(茅屋)¹²⁾이 조용하다’가 물론 ‘갈등을 겪던 마음이 가라앉아 평안하다’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문맥의 흐름에서 8월사의 내용이 過去의 回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현장에서 누릴 ‘만남의 기쁨’이라는 未來의 期待까지를 담아 독백한 것으로 풀이하게 되면, 그 앞 단락들에서의 ‘흐올로’의 갈등은 잠시라도 잊히고 심리적 평온 상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뒤이은 10월사에서 ‘스식움’의 극심한

갈등이 치솟는 예상하지 못한 急轉이 일어난다. 이 흐름새가 9월사를 하나의 단락으로 따로 떼어낸 까닭이다.

8월사와 9월사 사이에서 갈등에 의한 긴장이 얼마쯤 풀리던 것이 9월사와 10월사 사이의 急轉으로 갑자기 긴장이 팽팽해진다. 이 흐름의 변화는 9월사에 重陽節 풍속을 글감으로 다루어 문맥의 흐름이 停滯性을 띠면서 비롯된 것이다. 평온하던 9월사를 이어 10월사의 단락 ㉕에서 순식간에 현실상으로 되돌아와 더욱 심각하게 현실의 갈등이 증폭되는 이 狀況의 急轉이 動動의 짜임의 妙이고, 단락 ㉔를 이어받아 단락 ㉕을 이끌어내는 단락 ㉕은 妙處이다.

이 풀이의 마무리로 動動이 짜인 큰 틀을 정리하면 이렇다. 序詞를 처음으로 하여 1월사의 “흐올로 녀셔”의 심리가 4월사의 ‘錄事님’에 대한 戀情으로 이어지고, 이 연정은 8월사의 ‘만남의 기대’로 뻗어나가고, 이 기대는 12월사에서 임과 교감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을 확인하면서 마무리되는 흐름으로 되어 있다. 이 ‘스식움’의 갈등심리가 다시 1월사로 이어지면서 노래가 거듭될수록 絞情의 깊이가 강해지는 순환구조의 효과를 짜임새의 특징으로 한다.

5. 動動의 성격

5.1 ‘錄事님’의 성격

이 작품에서 화자의 상대를 가리키는 호칭은 ‘錄事님’, 일반적인 호칭은 ‘임’ ‘고운 이’가 사용되었다. 이 중에 ‘錄事님’은 그 신분을 밝히는 구체적인 호칭이다. ‘錄事님’과 관련된 직접적인 표현은, 호칭이 사용되지 않은 2월사의 “노피 현 燈入불 다호라 萬人 비취실 즈시샷다”와, 4월사의 “錄事니몬

10) 박노준, 『動動의 한 이해』, 『동방학지』 제36·37집(1983) 참조.

11) 이 작품에서 漢字로 기재할 낱말과 國文字로 기재할 말의 분별된 점에서 ‘새셔’와 ‘가만’은 각각 국문자가 분명하다.

12) 박병채, 앞의 책, 110쪽 참조.

넛나를 닛고신더”, 8월사의 “니를 피셔 너곤 오늘날 嘉俳샷다”, 12월사의 “나을 盤잇 저다호라 니피 알피 드러 얼이노니”이다.

2월사에 칭송된, 녹사의 氣品은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라도, 이 작품에서 사랑의 조건으로는 이 기품만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4·8월사에서 화자의 回想이 녹사와 화자의 關係를 드러내 보이는 한편, 12월사에서는 그 관계가 否定된다. 이 관계의 부정은 12월사에서 녹사가 화자의 의도에 대한 반응을 전혀 내보이지 않은 것을 말한다. 녹사의 이 태도는 ‘저’의 사용 권한에 무관심한 것이고, 이 무관심은 화자에 대한 무관심의 변형이다. 이로써 녹사가 화자를 모르거나 알아도 마음에 둔 여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곧, ‘錄事님’은 화자가 일방적으로 흠모는 인물일 따름이다. 이에서 화자의 사랑이 짝사랑이라는 성격을 드러내며, 이 짝사랑은 이 작품의 독백체 기법 효과를 설명하는 데 알맞다.

결국, 錄事는 화자와의 交感이 전혀 없는, 다만 존재하기만 하는 인물일 뿐이다. 이러한 녹사의 존재는, 2월사에서는 기품 있는 인물로 소개되지만, 12월사에서는 화자가 있는 현장에 실제로 존재하면서 화자처럼 생동감 있는 인물이 아니라 주변인물처럼 배경 구실만 할 따름이다. “金爐에 香盡하고 漏聲이 殘하도록 어디 가 이셔 누 스랑 바치다가 月影이 上蘭干키야 톱 바드라 왔느니”¹³⁾ 이 시조 작품에서처럼 화자의 말을 통해, 화자와의 관계가 뚜렷이 드러나고 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현장감 있는, 녹사의 모습은 動動에 없다.

5.2 화자의 성격

이 작품에서 서사를 뺀 나머지 12달 노랫말은 모두 화자의 독백으로 이루

어져 있다. 이 독백은 화자의 마음속에서만 內密한 목소리로 울린다. 그래서 이 노래 이름 ‘動動’은 사랑하는 입 앞에서 두근거리는 심장의 소리가 그 마음속에서만 울리는 안타까운 사랑의 共鳴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6월사에서 돌아보실 입을 마음으로 “적곰” 쫓는 마음속의 행위가 12월사에서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녹사 앞에 젓가락을 ‘들어 가지런하게 놓는’ 실제 행위로 발전하는데, “적곰”과 “드러 얼이노니” 어느 것이나 드러나지 않게 조심하는 모양새를 형용한 것이다. 이 조심하는 모양새는 그 안타까운 공명의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화자와 녹사의 관계가 交感이 없는 사이, 화자의 짝사랑에 의한 관계이기 때문에, 8월사의 ‘지난해들의 가배절에 입을 모시고 함께 지내곤 했다’는 사실은 12월사의 연회 장소에서의 만남처럼 같은 현장에 있게 되어 만난 단순한 만남일 뿐, 다른 의미는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12달의 노랫말 내용은 錄事가 화자에게 어떠한 반응도 내비친 적이 없음을 화자 스스로 밝힌 고백이다. 곧, 화자가 녹사에 대한 애모의 정은 일방적인 심리인 것이다. 따라서 4월사의 “무슴다 錄事니 문 넛나를 닛고신더”에서 녹사를 닛하는 듯한 ‘무슴다’는 두 사람 사이의 不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 혼자 자기 뜻이 전달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알맞다. 덧붙이면, 대상이 녹사임을 밝힌 4월사 앞의 2월사에서처럼 그 뒤의 5월사에서도 화자가 상대의 호칭을 말하지 않은 것은 노랫말 내용 자체에 까닭이 있다기보다는 ‘혼자’만의 戀情을 표현하는 것에 숨겨져 있는 수줍은 心理를 숨기려고 한 屈折된 표현이라는 표현의 속성까지 말할 수 있다. 이런 반면에 ‘錄事님’ ‘임’ ‘고운 이’를 직접 담은 표현들에서는 이것이 생략되면 온전한 문장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 두 표현 유형은 같은 독백이라도 칭송하고 축원할 때는 임의 호칭을 생략하고, 입을 향한 지향을 말할 때는 임의 호칭을 불러 쓴다는 차이도 있다. 그러므로 이 생략의 기법은 화자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獨白 형식 자체의 표현 속성이기도 한

13) 靑丘永言(珍本) 366번 작품(「無氏名」 항에 ‘閨情’으로 분류된 작품)

것이다.

결국, 화자는 3월의 달래꽃처럼 화사하고, 수줍음이 가득하며, 물래 기쁨이 있어 보이는 젊은 남성을 사모하는, 격식을 갖추지 않은 녹사 일행들의 연회에서 시중을 드는, 달래꽃처럼 평범한 처녀라고 그 정체를 말할 수 있다.

5.3 序詞의 성격

앞에서 12달 노랫말의 내용과 문맥의 엮어 엮인 짜임새를 풀이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자와 녹사의 성격(정체)을 밝혔다. 이 풀이들을 받아 여기서 序詞와 12달 노랫말과의 연관성을 살핀다.

한 작품의 각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인 한 맥락을 이루지 못한다면 온전한 작품이 될 수 없고,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작품의 가치도 없다. 이 일반적인 인식논리를 전제로 動動의 서사와 12달 노랫말이 본래 한 묶음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 動動이 궁중에서 노래되었다는 것은 이 13도막의 노랫말들이 유기적이고 조화를 이루어 한 편의 작품으로서 한 주제를 통일되게 다룬 온전한 작품이라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德으란 곱비에 받잡고 福으란 림비에 받잡고 德이여 福이라 호닐 나스라 오소이다.”

이 序詞의 내용에서 動動은 福·德을 축원하는 頌壽의 儀禮의 性格을 가지고 있음이 뚜렷하다. 그리고 “나스라 오소이다”라고 하는 권유에서는 集團을 대상으로 한 것도 분명하다. 이 권유 대상은, 작중 화자가 여성이므로, 여성들이다. 이에 송도의 대상은 자연스럽게 녹사인 남성들이 된다. 곧, 12월사의 내용에서 (노래하는) 여성들과 (그 노래를 듣는) 남성들이 있는 공간을 연상할 수 있다. 이 실마리가 바로 序詞의 내용에 있다는 것을 바로

앞에서 말한 것이다. 이에서 작중 화자는, 노래하는 실제 현장의 唱妓가 노래 속에 허구적으로 설정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앞에서 녹사의 성격이 화자와는 交感이 전혀 없이 다만 존재하기만 하는 인물이라고 한 것이나 주변인물처럼 배경 구실만 하고, 생동감 있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까닭을 이제 설명할 수 있다. 작중 녹사가 실제 歌舞가 演戲되는 현장에서 ‘노래를 즐기는’ 錄事들이기 때문에, 작중 녹사는 화자를 상대하여 無關心의 無反應의 인물로 허수아비처럼 존재하기만 하던 되었던 것이다. 動動 노래에 대한 실제 반응은 현장에 실존하는 녹사들이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태어 말하면, 10월사의 ‘한 분’은 작품 문맥에서는 ‘오직 한 분’이지만, 노래 부르는 실제 현장에서는 녹사 대중 전체를 묶어 말하는 호칭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것이 動動 노래의 性格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덧붙이면, 12월사의 ‘손’은, 문면에 드러나지 않은 ‘주인’과 똑같은 녹사이므로, ‘손’은 ‘손님’보다 ‘다른 사람’이라고 풀이되는 것이 알맞다.¹⁴⁾

이로써 動動의 12달 노랫말 내용이 한 여성의 일방적인 짝사랑과 그 갈등을 담은 個人敍情이던 것이 序詞의 集團儀式과 한 데 어울릴 수 있는 集團敍情으로 轉換되는 要因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작품의 大綱을 재해석하면 이렇다. ‘호올로 스식음’의 짝사랑과 갈등을 임금 앞에서 노래함은 격에 맞지 않다. 이 노래의 제격은 12월사의 ‘분지나무 저’로 ‘격이 낮은 연회’를 말한 대로 하급 관리인 녹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회에 맞다. 그 짝사랑과 갈등은 흥을 돋우는 助興素이고, 2월사와 5월사는 서사에서 말한 德·福을 직접 頌壽한 노랫말이다. 이 송도의 뜻은 7월사에서 ‘한 곳 함께 가기를 바라는’ 推仰으로 수렴된다. 이 추앙의

14) 12월사의 ‘손’은 ‘주인’과 ‘손님’의 대칭어로 풀이되며, ‘주인’은 곧 ‘錄事’이며, 이 녹사 또한 ‘손’과 같다. 이 ‘주인’과 ‘손님’은 설명을 위한 형식논리를 갖춘 것이다. 문맥에서 판단하면, ‘임’을 ‘(나의) 주인’으로 설정한 것이고, ‘손’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다른 사람’을 가리킨 말이라고 풀이되는 것이 알맞다.

지향이 한 편으로는 8월사의 ‘모시고 함께 있을 수 있는’ 기쁨으로, 다른 한 편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뜻을 담아 10·11·12월사 ‘스식음’의 갈등으로 형상화되었다. 이 갈등의 형상화는 더욱 강한 추앙을 역설하는 것이다. 여기서 9월사의 작중 맥락의 구실과 효과가 확인된다. 송도의 축원 속에서 마음이 평온함을 ‘새서 가만’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평온은, 좀 지나치게 확대하면, 나라의 태평을 연상하게도 할 것이다. 결국, 12달 노랫말은 녹사들의 업적을 기려 頌德·頌福하는 頌禱의 노래로 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는 12달 노랫말의 ‘現在의 時間性’과, 이 시간성에 의해 성립되는 ‘現場의 現行性’이다.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5월사이다. “수릿날 아츰 藥은 즈른 暁 長存호살 藥이라 반죽노이다.” 이 작중 진술은 녹사들을 마주한 실제 현장에서 노래로 頌禱하는 實況을 변형시킨 표현이며, 노랫말의 ‘藥 바침’은 頌德·頌福의 축원이다. 8월사의 “니물 피서 너곤 오늘날 嘉俳샅다”를 ‘아 옛날이여!’라고 하여 과거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늘’에 초점을 맞춘 것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현장’에서의 인식을 보여주는 같은 사례인데, ‘지난 여러 해 동안 함께 지내곤 하던 가배절을 올해도 함께 지내게 되겠구나’ 하는 ‘함께할 수 있는 기쁨’을 안에 담은 표현이다. 그리고 ‘임을 모심’은 7월사의 ‘한 데 함께 감’과 같이 녹사들의 업적을 기려 칭송하는 뜻을 형상화한 것이다. 심지어 11월사에서 “봉당 자리에 汗衫 두퍼 누워 슬흘 스”의 수사적 표현마저 똑같이 실감 나는 현장 효과를 의도적으로 겨냥한 것이라고 풀이될 수 있다.

결국, 12달 노랫말이 모두 현재 현장에서 하고 있는, 獨白만 아닌 實行도 아우르는 효과를 거둔다. 곧, 현재의 현장성을 작품 전체에 펼쳐 노린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개인 서정만 다룬 것이라면 時制의 작품 전체 일치는 단조로워서 흥겨움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動動에서 작품 전체의 시제 일치가 자아내는 흥

겨움은 현재의 현장의 흥겨움 때문이다. 그래서 흥겨움은 實行의 實現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 실현의 직접적인 사례가 12월사의 ‘젓가락 사건’이고, 6월사에서 “도라보실 니물 적곰 좃니노이다”는 상상에서의 實演을 일구어낼 것이다. 더욱 7월사의 “니물 훈디 너가져 願을 비습노이다”는 5월사의 ‘아침약 바침’과 함께 현장의 모든 참석자가 사랑을 ‘주고받는’ 허구적 관계를 福·德을 ‘주고받는’ 사실적 관계로 인식함으로써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는 효과를 자아낸다. 이 효과에서 본래의 效果性을 생각하지 않고 男女相悅行爲性만 뽑아내려고 한다면, 淫詞라는 말은 금방 내뱉게 될 것이다. 또한 12월사에는 주인과 손님의 분별이 없는, 동료 사이의 일체감을 이끌어내는 속뜻을 숨겨 담아 형상화한 것이다. 動動은 이러한 효과를 통하여 노래로 연회의 주체인 녹사들을 慰勞·鼓舞·振作시켰을 것이며, 더욱이 唱妓의 노래에 남성 녹사들의 흥겨움은 그 효과와 같았을 것이다.

動動이 頌禱의 노래인 것은 노랫말 일부분에 송도의 내용이 담겨서가 아니라 이와 같은 의도적으로 현재·현장의 情緒를 노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頌禱의 내용을 담은 序詞가 動動에서 맨 앞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 이 자리에 자리한 것은 動動의 作意를 먼저 밝히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결국, 動動의 序詞는 노래의 목적을 알리기 위한 성격을 띠고 본래 이 작품의 첫머리에 자리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이 작품의 가치를 온전하게 하는 데에 마땅할 것이다.

5.4 動動의 성격

바로 앞 序詞의 性格에서 밝혔듯이 動動은 頌禱를 주제로 다룬 작품이다. 이 송도의 대상은, 작중 글감으로는 하급 관리인 錄事¹⁵⁾들이라고 할 수

15)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 중앙에 설치된 하위관직으로 조선 초기에는 주로 士族의子弟들이 임용되었는데, 세조 12년(1466) 官制改革 때 奉事 司錄 등으로 명칭이 변경

있다. 송도의 노래가 임금이나 왕실을 대상으로 壽福을 비는 내용이 본래 구실의 것¹⁶⁾이라 하더라도, 글감으로 錄事를 다룬 데다 이 녹사를 연모하는 내용으로는 임금이나 왕실에 대한 송도의 노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動動에 대한 인식으로, 고려사 등의 여러 고문헌에서 기록된 頌禱之詞와 함께 중종실록의 淫詞 두 평어는 서로 모순된다. 動動의 노랫말에 대하여 이 중 하나는 동동의 제 구실을 제대로 평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한 의도로 평한 것이라고 분별되어야 할 것이다. 動動의 내용이 연모의 정을 다루었다고 淫詞로 판단한다면, 井邑詞 또한 중종실록에서 그렇게 판단되었던 것이고, 조선시대의 연군가 또한 같은 부류로 묶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종실록의 淫詞 판단은 노랫말의 교체를 위한 의도적인 평가라고 재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動動이 頌禱之詞라는 평가는, 이 고찰의 결과로는, 序詞와 12달 노랫말의 내용 모두 아우른 평가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序詞에 대한 12달 노랫말은 여성이 남성을 연모하는 내용이지만, 녹사(와 같은 하급 관리) 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할 일을 鼓舞하고 振作시키려는 목적으로 지어 부른 속악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알맞다. 즉, 조선시대의 動動 해석 및 평가, 頌禱之詞의 구실에 대하여 고려시대의 頌禱之詞를 조선시대를 잣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고려시대의 頌禱之詞의 적용 범위를 간명하게 밝힐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때까지는 노랫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이 고찰의 결론적 관점이다.

또한, 녹사가 중앙의 관아의 관리이기 때문에 노래가 처음 지어져 노래된

되거나 폐지됨으로써 관직으로서의 이름은 사라졌다. (학원세계대백과사전, 1994.) 조선시대에 東西兩班의 각 관아에 속했던 하급 吏屬의 직명, 녹사는 議政府와 中樞府에 속했고, 문반의 관청에는 의정부에서 무반의 관청에는 중추부에서 녹사를 파견했다. (한국사대사전, 1978.)

16) 조규익, 「頌禱 모티프의 연원가 전개양상」, 『고전문학연구』 제32집(2007.) 참조.

곳, 지은 이 등을 서울 중심으로 말할 수 있다.¹⁷⁾ 그렇지만, 動動이 지방에서 노래 불렀다면, 지방에서 본래 지어졌을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動動이 長生浦(歌·曲)와 혼동되는 고문헌의 양상에 誤謬가 있다 하더라도¹⁸⁾ 이 오류 자체가 독립된 두 노래 사이의 연관성 및 지역성에 대한 영향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즉, 이 노래가 서울, 궁중으로 들어와 ‘錄事’ 등의 일부 말이 바뀌어졌을 경우도 생각해볼직하다. 그리고 動動과 長生浦의 관계는 현재 자료들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작품들과 내용이 다른 것만은 분명하다. 長生浦는 勝戰을 글감으로 다룬 내용이며 군졸들이 부른 노래¹⁹⁾지만, 動動은 위로·고무·진작을 위한 내용이며 화자가 여성이고 여성이 불러야 알맞기 때문이다.

끝으로, 動動의 현재 상태가 본래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序詞와 12달 노랫말을 서로 다른 것에서 가려서 묶었다거나 하는 것에 대하여는 계속 관련 자료들을 모으면서 고찰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적절한 자료를 찾아낼 때까지는 현재의 자료에 충실하게 動動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마무리

이 고찰은 動動의 미적 짜임새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작품과 序詞의 성격을 밝히려고 하였다.

動動은 월령가체 형식을 사용하였다. 그렇지만, 문맥에서 內容과 脈絡의 密接性으로 단락을 나눈 결과는 네 계절(春1·2·3/夏4·5·6/秋7·8·9/冬

17) 신은경, 「〈動動〉의 형성과정 및 작가층에 대한 재검토」, 『국어국문학』 제123호 (1999.) 참조.

18) 김준옥, 앞 논문, 281~283쪽 참조.

19) 같은 쪽 참조.

10·11·12 : 음력)의 분별과 같지 않게 여섯 단락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글감도 12달 모두 절기 풍속을 다루고 있지 않았다. 절기 풍속을 다룬 달은 2·5·6·7·8·9월이고, 1·3·4월은 자연현상을 10·11·12월은 임의의 글감을 다루다.

動動의 성격은 淫詞가 아니라 頌禱之詞라고 결론하였다. 序詞는 12달 노랫말의 본래 作意인 頌禱性을 맨 앞자리에서 말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12달 노랫말은 먼저 그 바탕 정서의 틀을 1月詞 → 4月詞 → 7月詞 → 11月詞로 짜이고, 이 정서를 작품 표면에 굴절시켜 1月詞 → 4月詞 → 8月詞 → 9月詞 → 12月詞의 서정 문맥 흐름의 틀로 짜였다. 첫 단락은 序詞, 둘째 단락은 2·3·4월사로 화자와 녹사의 관계를, 셋째 단락은 5·6·7·8월사로 임을 향한 志向을, 넷째 단락은 9월사 하나로 그 전후 문맥의 急轉을 일어나는 妙處이고, 이 急轉을 動動의 짜임의 妙라고 평가하였다. 다섯째 단락은 10·11·12·1월사로 앞 세 달의 노랫말에서는 임의 관심을 얻지 못한 화자의 갈등심리가 구체적으로 표출되고, 이 갈등심리가 1월사로 이어진다. 1월사에는 화자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문맥에서의 성격으로 1월사는 그 뒤의 노랫말 내용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화자의 상황을 밝혀 나가도록 암시하는 전주곡의 구실을 한다. 이처럼 문맥이 序詞를 이어받아 1월사에서 시작하여 12월사로 마치고 다시 그 맥락이 1월사로 이어지는 순환구조의 짜임으로 되어 있다.

12달 노랫말의 내용은 한 여성이 한 남성을 일방적으로 연모한 작사상을 담은 것이지만, 이 個人敘情이 序詞의 集團 頌禱儀式과 결합되어 集團敘情化됨으로써 頌禱의 노래로서의 性格을 갖추게 된다. 즉, 작품 내용의 작사량과 갈등은 動動 노래의 흥을 돋우는 助興素이고, 9월사 앞부분은 직접적은 頌禱 내용과 推仰을 다루고, 그 뒷부분의 갈등 형상화 또한 강한 추앙을 역설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양쪽을 연결하는 9월사는 송도·추앙의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하였다. 이렇게 動動

전체가 頌禱의 노래라고 재해석한 실마리는 12달 노랫말에 공유된 '現在の 時間性'과, 이 시간성에 의해 성립되는 '現場의 現行性'이다. 이 현재성으로 현장의 모든 참석자가 福·德을 '주고받는' 실제 관계를 인식함으로써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는 효과를 자아낸다. 動動은 이러한 효과를 통하여 노래로 연회의 주체(작품에서는 대상)인 녹사들을 慰勞·鼓舞·振作시킨 노래라고 결론한다.

이 고찰에서 다루지 못한 '效仙語'에 대해서 다음으로 미룬다.

■ 참고문헌

- 『樂學軌範·樂章·歌詞·教坊歌謠(合本)』, 아세아문화사, 1974.
 『中宗實錄』, 한국고전번역원 인터넷 홈페이지, 조선왕조실록.
 『한국사대사전』, 한영출판사, 1978.
 『학원세계대백과사전』, 학원출판공사, 1994.
- 김준옥, 「장생포'와 '동동」, 『한국언어문학』 제35집, 1995.
 박노준, 「動動의 한 이해」, 『동방학지』 제36·37집, 1983.
 박병채, 『高麗歌謠의 語釋研究』, 이우출판사, 1980.
 신은경, 「〈動動〉의 형성과정 및 작가층에 대한 재검토」, 『국어국문학』 제123호, 1999.
 엄경흠, 「農謠 謠詞와의 비교를 통한 「動動」의 解釋」, 『동남어문논집』 제21집, 2006.
 이명희, 「〈動動〉의 난해어구 고찰」, 『강릉민속학』 제20집, 2006.
 임기중, 『가사문학전집』 제2권, 아세아문화사, 1999.
 조규익, 「頌禱 모티프의 연원이 전개양상」, 『고전문학연구』 제32집, 2007.
 황순구, 『靑丘永言研究』, 금방울사, 1980.

〈Abstract〉

The esthetic pattern and character of the 'Dongdong' of Koryeogayo

Yang, Hee-chan

This study is focused on analyzing esthetic pattern of the Dongdong(動動) and showing it's character and the character of preface.

Dongdong used Wollyeongga(月令歌) style. But, after analyzing closeness of the content and context, it is revealed that Dongdong is divided into six groups, not like usual works that follows classification of four seasons. And, all 12 months don't show seasonable customs. Feb · May · June · July · Aug · Sep show seasonable customs but Jan · Mar · April, natural phenomena, Octo · Nov · Dec, arbitrary material.

The character of Dongdong is Songdojisa(頌壽之詞) not Eumsa(淫詞). The preface play a role of telling supplication that is original intention to make 12months song. 12months song has big structure ; January → April → August → September → December. 1st paragraph is preface, 2nd is February March April songs that show the relation between teller and 'noksa'(錄事), 3rd is May June July August songs that show the inclination to the 'Im', 4th is September song that is the marvelous place that shows steep change, a wonder of the pattern of Dong dong. 5th

is October December November January song. October December November song show concretely mental conflict of the teller who was failed to get concern from 'Im'(唸). This mental conflict is showed in January song also. But it is showed by October December November song because there is no situation of the teller in January song. From this contextual character, it is considered that January song play a role of prelude that makes the following songs to reveal gradually the situation of the teller. Like this, Dongdong has circulation pattern, that is, context is revealed through route, as follows ; preface - January song(beginning) - December song(end) - January song

The content of 12month songs is a woman's one-sided love to a man. This personal lyricism has become the song of supplication through bonding with group consciousness of preface. This opinion is based on the fact that 12 months songs are using present tense that shows 'the nature of present time' and 'the nature of scene'. The nature of present time draws out an effect that makes all participants of the scene get together mentally and physically through recognizing relation that people exchange blessing. According to this effect, it is considered that Dongdong comfort, encourage, stir up 'noksa', chief of the feast.

Key words : Dongdong, Song of supplication, The nature of present time, The nature of scene, Circulation pattern